

오지 탐사 전문기획전 '치앙라이의 거대 곤충'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서 내년 4월까지 전시

9월 한가위를 맞아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에서는 '치앙라이의 거대 곤충' 전문 기획전을 개최한다.

황금의 삼각지대를 불리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 있는 태국 북부 치앙라이(Chiang Rai)는 오지 중의 오지로 원시 정글을 간직하고 있어 크기가 거대한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아틀라스누에나방이 서식하는 곳이다. 부안누에타운은 부안농산업과 관련하여 누에를 주제로 전시하는 전문과학관이다. 이곳의 전문기획전을 이끌고 있는 손민우 박사는 세계의 누에나방 확보를 위해 2004년도부터 탐사에 나선지 무려 8년 만인 2011년에 살아있는 아틀라스누에나방의 사진촬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안누에타운에 전 세계의 누에



'치앙라이의 거대 곤충' 전문 기획전

나방을 전시하기 위해 세계 오지로 탐사를 떠난다고 한다.

날개 편 길이가 200mm가 넘는 아틀라스누에나방과 더불어 330mm의 태극대왕대벌레를 비롯하여 90mm에 달하는 오각뿔장수풍뎅이, 몸장 타이타누스사슴벌레, "나보다 더 큰 매미는 없다." 인테르메디아제왕매미, 그리고 세계최대 귀뚜라미 페리알장다리장수풍뎅이, 헬레나금비단제비나비 등이 현장 사진과 함께 전시된다.

부안군 교육청소년과 김화순 과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을 못했던 답답함을 해외 로케이션으로 현장감 반영한 제17회 오지 탐사 전문기획전이 한가위를 맞아 귀성하는 가족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4월 까지 전시하며, 부안누에타운은 부안농 오디의 고장 유유마을(변산면 참)에 위치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580-4334/408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추석맞이 기획전인전 열린다

11월 30일까지 '추(秋)천상품-호사원이 소개합니다' ... 경품 이벤트도 진행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추석을 맞아 기획전인전 '추(秋)천상품-호사원이 소개합니다'를 진행한다

기획할인전 '추(秋)천상품'은 전통공예 소재를 활용, 현대인의 쓰임에 맞춰 제작된 공예품으로 계절을 고려한 고급스러운 테이블웨어가 가능한 공예품과 자체 개발 캐릭터 '호사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캐릭터 '호사원'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까치호랑이' 민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캐릭터로 공예문화 대중화를 위해 호기롭게 전주공예품 전시관에 입사한 신입사원 콘셉트로 제작됐다.

호사원이 소개하는 '추(秋)천상품'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3호 유기장 이종덕 장인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3호 부거리유기장 안시성 장인의 공예품을 포함, △무명 테이블 매트(윤혜엽) △THE ART 크로스백(교동아트) △도자기 수저받침 산(권성은 김파니) 등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 전시용이 아닌 쓰임에 맞춰 제작된 공예품이 주를 이뤘다.

가격은 10% 할인가로 '책갈피(남스토리)' 6,300원부터 '깊은 볼 세트(안시성)' 27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기획전인을 포함해 10만 원 이상 구매

한 고객에게는 '머그잔'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는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되며, 경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상품전을 기획한 김혜원 공예문화산업팀장은 "자체 개발한 캐릭터 '호사원'이 처음 대중 앞에 나와 '추(秋)천상품'으로 공예문화 홍보에 나섰다"며 "앞으로 '호사원'과 함께 전주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전인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구매는 현장 및 온라인 쇼핑몰 명인몰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천사'에게 맡겨주세요"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소리축제의 마스코트인 자원봉사자 '2022 소리천사' 발대식을 가졌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소리축제의 마스코트인 자원봉사자 '2022 소리천사' 발대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프로젝트팀 S.E.'의 공연을 시작으로 박재천 집행위원장의 환영사, 소리천사 선서, 팀 교육, 이벤트 영상 관람 및 시상식,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100여 명의 소리천사와 소리축제 스태프들은 이 자리에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축제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축제장(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곳곳에 배치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축제를 위해 묵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소리천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매해 축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다"며 "소리축제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배움과 경험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KBS 국악관현악단 새만금 음악회'

군산예술의전당서 16일 소리꾼 고영열·방수미 등 출연

군산예술의전당이 KBS전주총국과 공동기획으로 'KBS 국악관현악단 새만금 음악회'를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에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KBS전주방송 개국 84주년 기념 시청자 감사음악회로 힐링의 소리가 우리 소리인 국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 같은 시간을 제공하고자 진행하게 된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는 JTBC 팬텀싱어3 준우승팀 레미디언의 리더이자 국악계의 슈퍼루키로 불리는 고영열이 KBS 국악관현악단의 협연을 통해 국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며 우리지역 최고의 명창 방수미도 출연하여 흥겨운 우리가락을 군산시민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또,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장원, 경주신라국악대제전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아쟁서영호 명인과 1988년 창단 후 최고의 사물놀이팀으로 인정받는 '사물광대'의 공연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이현현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한국의 대표 국악관현악단으로 불리우는 KBS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을 KBS전주총국과의 공동기획으로 우리시민들에게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국악장르의 매력에



꼭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BS국악관현악단 새만금 음악회'는 전석무료이나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사전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한가위 전통문화 체험 즐겨요"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9월~12월까지 옥외트락에서 '2022년 한가위 민속놀이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일인 추석 당일 휴관이다.

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중 옥외트락에 상시체험 부스가 설치, '전통 민속놀이체험' 부스에서는 대형 윷놀이와 연날리기, 활쏘기, 공기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옛 생활도구체험' 부스에서는 조선시대 선조들이 사용했던 도랑형기구와 맷돌, 절구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놀이마당 오감'에서 준비한 다양한 전래놀이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나무 채를 이용하여 나무 공을 쳐가며 경쟁하는 민속놀이 장치기와 농경지모양을 바다에 그리고 작전을 세워 공격과 수비를 하는 바닥놀이 이랑타기를 팀을 나눠 체험할 수 있고, 이긴 팀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장 소독과 관람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실시하며, 박물관 관람과 체험참가 모두 무료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나 가족간, 세대간 소통하며 잊혀져가는 우리 세시풍속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